

Issue Comment

- ✓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성장을 위해 애플티브와 총 40 억 달러 가치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계약 체결
- ✓ 상호 보완적 역량, 기술통합으로 자율주행 개발 시너지 가능
- ✓ 부족했던 자율주행 S/W 경쟁력 확보, valuation 개선 기대
- ✓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업체간 합종연횡은 점차 확대 예상

현대차그룹, 애플티브(Aptiv)와 합작법인 설립 - 채워지는 자율주행 역량

-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의 성장을 위해 애플티브(Aptiv Technologies Limited)와 자율주행 Level 4/5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 설립 인·허가와 관계당국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최종 설립될 예정이며, 신설 합작법인은 전세계 자동차 메이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용 S/W 개발 및 공급을 목표로 함
- 현대차그룹과 애플티브는 총 40 억 달러 가치의 합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 현대차그룹은 현금 16 억 달러(한화 약 1 조 9100 억 원) 및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개발 역량, 지적재산권 공유 등 4 억달러 가치를 포함 총 20 억 달러 규모를 출자하며, 애플티브는 자율주행 기술과 지적재산권, 700 여명에 달하는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인력 등을 JV에 출자. 현대차그룹 내 지분 비율은 현대차 26%, 기아차 14%, 현대모비스 10%로 구성
- 애플티브는 과거 델파이오토모티브가 파워트레인 부문 사업 분할에 따라 만들어진 회사. 델파이테크놀로지가 전통적인 형태의 내연 기관 관련 동력계 중심 사업이라면, 애플티브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사업에 초점. 분할 당시 애플티브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후 오토마티카(ottomatika), 누토노미(nuTonomy)와 같은 자율주행 스타트업 인수, 로보택시 시범서비스 등을 진행. 이를 통해 인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컴퓨팅 플랫폼, 데이터 등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전장부품 및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의 역량 강화
-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역량 및 기술 통합과 시너지 기대.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차를 비롯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합작법인에 공급, 원활한 자율주행 연구 및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지원가능. 애플티브가 진행하던 로보택시 시범 사업에도 현대기아차 차량 투입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
- 현대차그룹은 그랩(Grab), 오로라(Aurora) 등 다양한 산업/기업에 투자하며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 금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판단, 그 동안 받아왔던 Valuation discount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완성차와 자율주행 전문 업체 간 별도의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형태에도 주목할 필요.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업체간 합종연횡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